

文정부 향하는 호남 민심... 난감한 국민의당

호남인사 중용·'임행진곡' 제창
개혁코드·탈권위 행보 등 호평
국민의당 존재감 동력 마련 부심
내년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혁신 기조와 함께 호남 인사 중용에까지 나서면서 호남 민심의 전반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난감한 상황이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은 정치적 재기에 나서야 하지만 여론의 순항에 밀려 별다른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정치적 존립 기반이 붕괴되지 않느냐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호남의 기대를 넘어 서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있어 친문 인사들을 일단 배제하고 비서실장과 총리에 호남 인사들을 과격 기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는 물론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호남 인사들의 등용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 개혁, 정유호 문건 및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물론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박승준 보존처장 해임 등도 호남의 개혁 코드에 부합하고 있다.

취임식에서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행보도 호남 민심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일정 공개는 물론 경호 완화, 직접 인사 발표, 청와대 참모들과의 서초 차림 산책, 직원들과의 구내 식당 식사 등 격의 없는 리더십에 호남 민심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공개적인



특사들의 대화 새정부 러시아와 중국 특사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브콜도 국민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당을 “뿌리가 같은 정당”이라며 국회에서의 협력을 부탁한데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협치를 넘어 통합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정을 통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입각설도 나오고 있다. 연정론이 내부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제3당의 위치마저도 흔들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나 정책 연대를 제시하며 민주당과 선을 긋는 한편 6월 임시국회를 버리고

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사건건 각을 세울 수도 없어 경우 따라 애매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의당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함께 자갈밭을 토대로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재도전을 시사와 함께 전국 낙선 사례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의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원내 40석 정당으로 해체하기는 정치적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며 “하지만 국가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확신 아래 인내와 혁신을 통해 다시 평가받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무총장 이춘석·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 당직개편



이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춘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김태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면적인 당직개편을 했다.

추미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신임 사무총장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원내 비서실장을 역임한 만큼 당청간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김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예결위 간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성공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은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통합 과정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했으며, 중장기적 국정방향과 민주당 혁신 플랜을 구성하기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제1사무부총장은 재선인 김민기 의원이, 제2사무부총장과 제3사무부총장은 김영호 임종성 의원 등 두 초선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 유임됐으며 대변인은 초선인 백해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맡았다.

당 대표 직속인 비서실장에는 초선 문미옥 의원이 임명됐고, 강희용 당 대표 메시지실장이 당 대표 직속 정무조정실장으로 일하게 됐다. 교육연수원장은 재선인 전혜숙 의원이 임명됐고 수석부원장은 초선 김정우 의원이 맡았다.

전략기획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이, 홍보위원장은 재운경 의원이 임명되는 등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두 초선 의원이 나란히 당직에 포함됐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초선인 정춘숙 의원이 맡았으며, 디지털소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유명인 부산해운대갑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 “5년 뒤 50% 이상 지지 받겠다”

대권 재도전 밝혀...5·18 행사 참석 호남 지지 감사 인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재도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다당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다당제 하에서 치를 수 있었다. 변화의 시도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다시 더 크게 확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 70여 명과 식사를 하면서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 처음으로 다당제 시대를 열었고,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도 다당제를 유지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자평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저녁에는 학계 중심의 지지자 모임인 ‘전문가 광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고 “5년 뒤 제대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결선투표 없이도 50% 이상을 지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선 패배 후 당 안팎의 인사들을 만나며 낙선 인사 행보를 벌이 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인 18일에는 광주를 방문, 호남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75% “文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75%에 달했으며, 이런 긍정적 의견이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4.8%로 집계됐다. 반면 문 대

통령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16.0%였다.

문 대통령의 개혁과제로는 검찰개혁(24.0%)과 정치개혁(19.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벌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로 선회?

통합 당내 반대 높고 정체성 안맞아...사안별 연대엔 공감

대선 직후 거론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정책연대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양당 내부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차선책을 택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통합론을 맨 처음 꺼낸 국민의당 주승용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조차 1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무조건적 통합·연대가 아니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합당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절차는 물론 대북정책과 안보관 등에 있어 정체성 차이

를 고려하면 주 권한대행이 제시한 ‘8월 통합 전당대회’와 같은 조속한 통합은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라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다만, 정책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통합론을 꺼낸 이유가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는 게 주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주 권한대행은 “사귀어보고 서로 성격이 맞고 다 맞을 때 결혼하는 것”이라며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과 앞으로 개혁입법에 관해 정책연대가 이뤄졌으

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대가 잘 되면 순차적으로 통합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새 지도부의 성향이다.

대선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한 국민의당에서는 16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이달 말께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은 다음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출도 주도하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1차 변곡점은 원내대표 선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명의 원내대표 주자 가운데 연대와 합당에 모두 부정적인 유성영 의원을 제외하고 김동철·

김관영 의원은 정책연대·공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당장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자강론에 매달려야 할 때라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그럼에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겨우 유지한 상황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40석인 국민의당과 사안별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다.

이중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인 입장이 라는 전제로 “다른 당과도 정책별 연대가 가능하지만 국민의당은 일자리, 보육,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서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